

##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

이 보고서는 2021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'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'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.

문 창 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 
박 윤 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 
장 지 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회계사

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IMF의 국제통계작성기준(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: 이하, PSDS)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, 포괄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채가 산출되고 있다.

2020년의 공공부문 부채(D3)는 1,280조원(GDP 대비 66.2%)으로, 일반정부 부채(D2)는 945.1조원(GDP 대비 48.9%)으로 OECD 국가 중 양호한 수준이다. 한편, 2020년 일반정부 부채(D2)는 코로나 19 영향에 따라 추경 편성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3조원(6.2%p) 크게 증가하였다.

- **국가채무(D1)**: GFSM 1986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회계·기금의 현금주의 국가채무(국채, 차입금, 국고채무부담행위)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 관리계획 등 국가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재무정보로 활용됨
- **일반정부 부채(D2)**: PSDS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(중앙정부, 지방정부, 비영리공공기관) 부채로 국제기구(OECD) 제출 및 국제비교용으로 활용됨
- **공공부문 부채(D3)**: PSDS 기준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로 기존 일반정부부채(D2)에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,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목적으로 활용됨

# 1 부채의 종류

2020년의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부채(총부채<sup>1)</sup>)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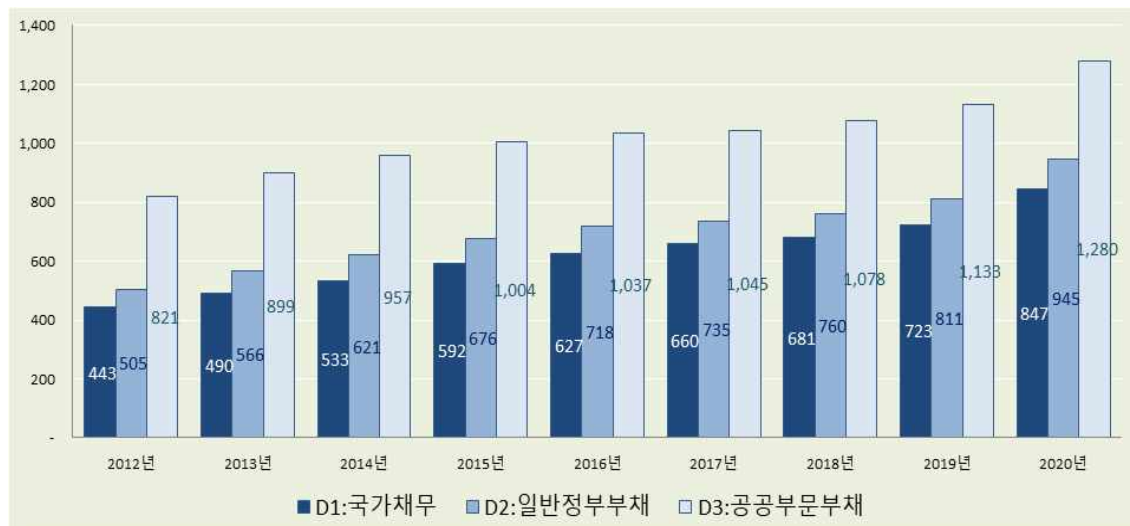
| 유형              | 2020년 규모<br>(GDP대비) | 포괄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출기준          | 관리기준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채무<br>(D1)    | 847조원<br>(43.8%)    | 중앙정부 및<br>지방정부 회계·기금        | 국가재정법<br>현금주의 | 국가재정운용계획<br>국가채무관리계획 등 |
| 일반정부 부채<br>(D2) | 945조원<br>(48.9%)    | D1+비영리공공기관<br>(예보, 농어촌공사 등) | PSDS<br>발생주의  | 국제 비교<br>(IMF, OECD)   |
| 공공부문 부채<br>(D3) | 1,280조원<br>(66.2%)  | D2+비금융공기업<br>(LH, 한전 등)     | PSDS<br>발생주의  | 공공부문<br>재정건전성 관리       |

1) 총부채(Gross Debt Liabilities)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, 채무상품(Debt Instruments)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, 차입금,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

우리나라의 부채 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9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,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12년 505조원에서 2020년 945조원으로 증가(연평균 55조원, 8.2% ↑)하였고, D3는 821조원에서 1,280조원으로 증가함(연평균 57조원, 5.7% ↑). 특히, 2020년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확대 등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

< 부채 종류별 총부채의 9개년 추세 >

(단위: 조원)



## 2 D1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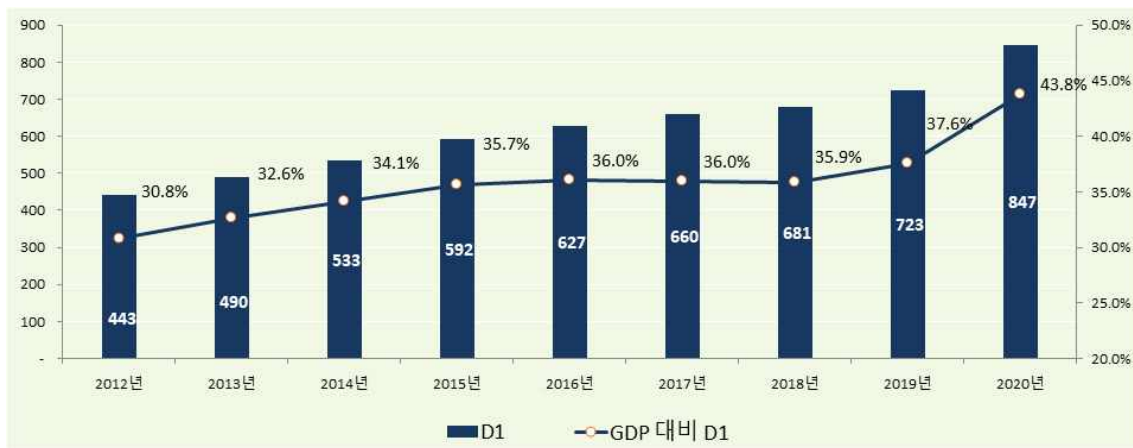
2020년의 D1은 847조원(GDP 대비 43.8%)으로 전년 대비 123조원(6.2%p) 증가하였으며,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(103조원) 및 외환시장 안정(8조원)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(115조원)에 주로 기인함.

☞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D1의 증가속도\*는 2020년 크게 증가하였으며,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자산 대비 D1의 규모를 분석해본 결과 2020년 101.4%로 D1규모가 금융자산 규모를 넘어섬

\* '13년 47조(1.9%p) 증가, '14년 43조(1.5%p) 증가, '15년 58조(1.6%p) 증가, '16년 35조(0.3%p) 증가, '17년 33조(△0.1%p) 증가, '18년 20조(△0.1%p) 증가, '19년 43조(1.7%p) 증가, '20년 123조(6.2%p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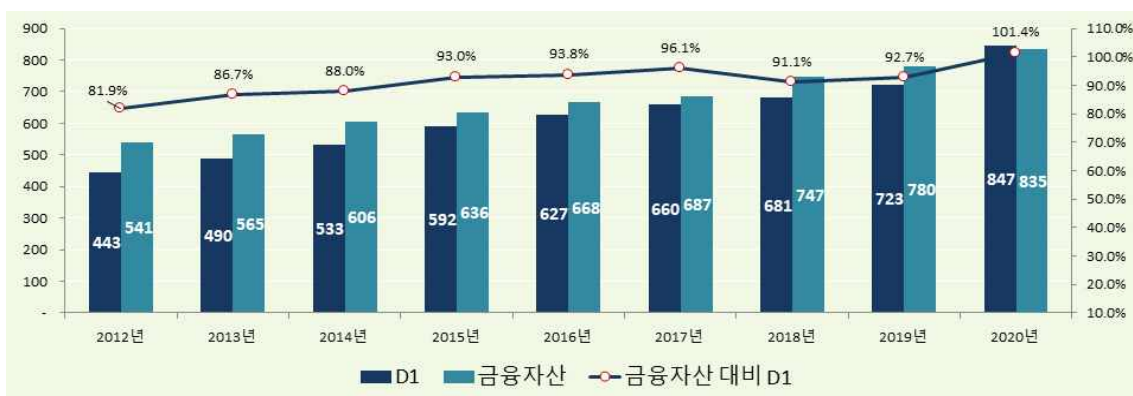
### <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>

(단위: 조원, GDP 대비 %)



### < 금융자산 대비 D1 추세 분석 >

(단위: 조원, %)



\* 금융자산은 PSDS 기준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·기금을 합산하여 산출

\*\* 금융자산 대비 D1(%) = (D1 / 금융자산) X 100

### 3 D2 분석

#### 1 증감분석

2020년의 D2는 945조원(GDP 대비 48.9%)으로 전년 대비 134조원(6.8%p) 증가하였으며,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(113조원) 등에 주로 기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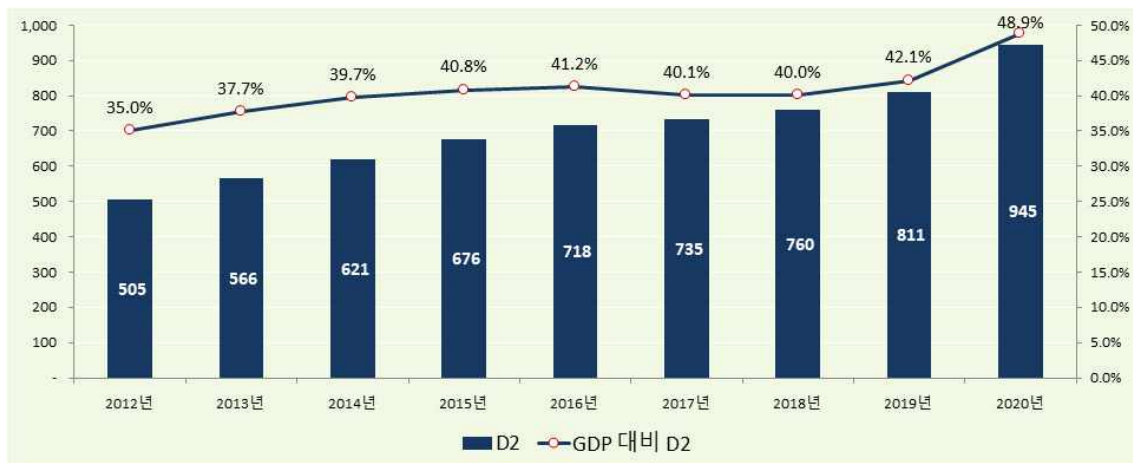
중앙정부 부채(898조원)는 전년(768조원) 대비 131조원 증가함. 일반회계 적자보전·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및 공채 등 채무증권이 111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, 임대형 민간투자사업(BTL) 등 차입금이 11조원 증가하였음

지방정부 부채(63조원)는 전년(55조원) 대비 8조원 증가함.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증가(9조원)하였고, 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감소로 인해 1조원 감소함

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전년(50조원)대비 4조원 증가(54조원)하였는데,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휴면예금 예수부채 증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제부금적립금 증가 등에 기인함

<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>

(단위: 조원, GDP 대비 %)



② 국제동향

D2는 국가 간 비교 시 주로 사용하는 지표이며,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부채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

< 일반정부 총부채(D2)의 국제 비교 >

(단위: GDP 대비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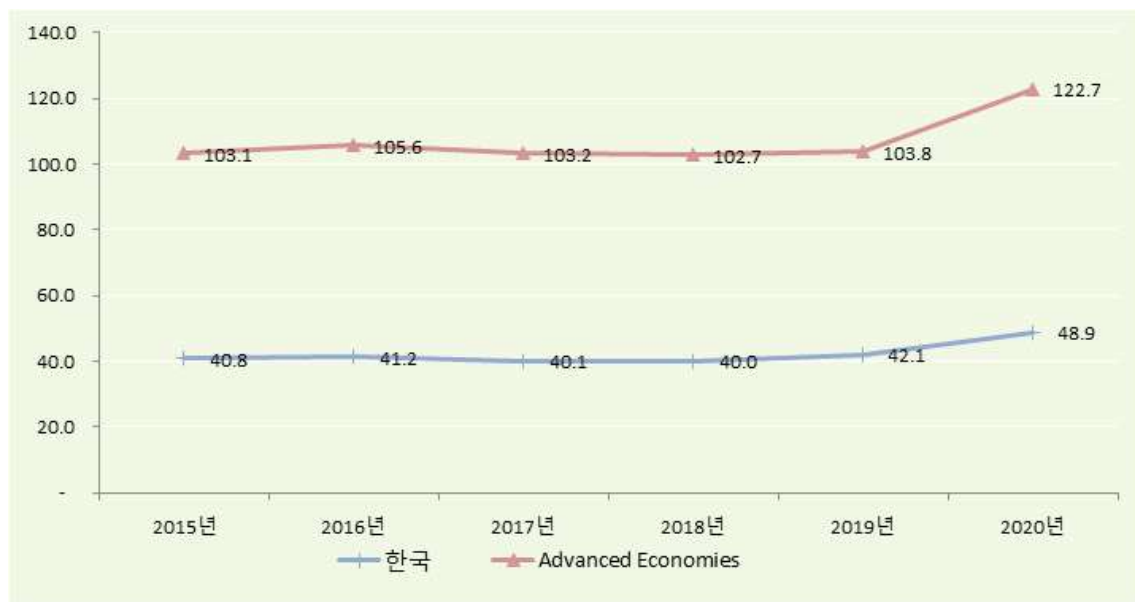


출처: IMF Fiscal Monitor('21.10),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(D2) 기준

GDP 대비 총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우리나라 GDP 대비 총부채는 2015년 40.8%에서 2020년 48.9%로 8.1%p 증가하였고, 선진국(Advanced Economies) 평균은 2015년 103.1%에서 2020년 122.7%로 19.6%p 증가함

< 일반정부 GDP 대비 총부채(D2) 추이 >

(단위: GDP 대비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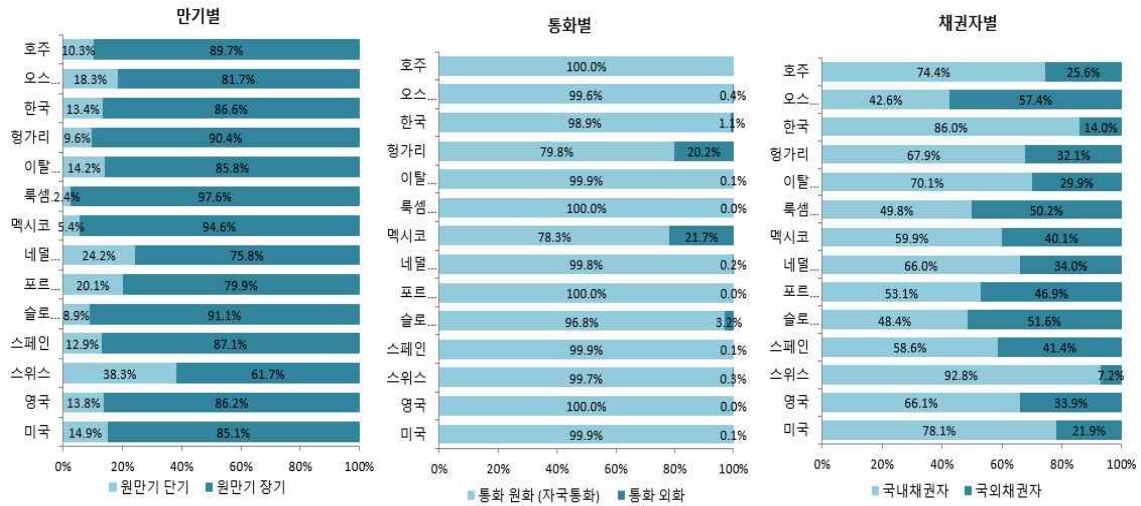


출처: IMF Fiscal Monitor('21.10),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(D2) 기준

한편, 부채유형에 대한 추가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D2를 만기별, 통화별, 채권자 거주지별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

< 일반정부부문 부채별(D2) 비교 >

(단위: %)



출처: OECD.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

(만기별) 대부분 장기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, 장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97.6%임. 단기부채가 많으면,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 도래 부채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

(통화별) 대부분 원화(자국통화)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, 외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21.7%의 비중을 보임. 외화 부채가 많으면, 환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등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

(채권자 거주지별) 국내채권자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며, 국내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92.8%이며, 국외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7.4%임. 국외채권자 보유 부채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IMF, OECD 등 국가별재정분석보고서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로 활용

## 4 D3 분석

### 1 증감분석

2020년의 D3는 1,280조원(GDP 대비 66.2%)으로 전년 대비 147조원(7.3%p) 증가함. D3에서는 비금융공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, 주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감 금액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3.2조원 증가, LH 3.6조원 증가, 한국가스공사 2.9조원 감소 등으로 구성됨

D3의 GDP 대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다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

<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>

(단위: 조원, GDP 대비 %)



### 2 국제동향

한국의 D3는 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

< D3의 국제 비교 >

(단위: GDP 대비 %)



출처: OECD.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